



의혹의 시대, 국민은 더욱 힘들고 화난다

김윤호 주필·행정학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칼럼

요사이 '단군 이래 최대 토건 비리'로 번지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모든 이슈를 뺀 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판교) 29만평에 5684가구를 지어 분양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14년 당시 성남시장으로 이 사업을 설계한 이재명 경기 지사는 '개발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한 최대 치적'이라고 했지만 특혜 의혹은 여야 정치권, 법조계, 언론계까지 강타한 뒤 검찰로 넘어갔다. 양파처럼 까면 깎수록 나오는 의혹들이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2년 가까운 장기간의 코로나19 전염병 대응(팬데믹)으로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 하고 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이제 '살려 달라'는 분노에 찬 비명을 지르며 차량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밀린 임대료와 은행대출 이자, 생활비 등에 막다른 골목으로 쫓겨서 한 가닥 희망의 끈마저 놓아 버리고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있다.

작년 4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황희석·최강욱 당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후보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언론사 관계자 등 11명을 고발해 달라는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용 의원(부장검사 출신)에게 전달했고 김용 후보는 이를 당에 전달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뜬도 보도 못한 희한한 사건으로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불 난 집에 기름 붓듯이 천문학적인 돈이 거래된 대장동 개발 의혹이 터진 것이다. 하루 하루 살아가기도 힘든 서민들의 절박한 처지를 비웃고 약이라도 올리려는 건지, 5천 억의 부동산 개발 부기 이익을 끼리끼리 몇 백억, 몇 십억씩 나누어 먹었다는 대장동 의혹이 터졌다. 알바 알기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2030 청년들은 별나라 이야기를 보며 쓰디쓴 허탈과 분노를 삼키고 있다.

10월 1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장동 사건으로 충돌하고 있다. 여당은 국민의힘 광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 월 1,500만원의 고액 고문료를 받은 조호화 고문들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많다면 '국민의힘 게이트' '국민의힘발(發) 범조 게이트'라고 부르고 있다. 야당은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이 설계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기획본부장)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측근 유동규 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재명이 몸통', '이재명 게이트'라고 부르고 있다.

화천대유 최대 주주인 김만배 씨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전후로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여덟 차례 만났고,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이 후보의 무죄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퇴임 이후엔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다.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부친 소유 연희동 단독

주택을 김만배 씨의 누나 김명옥 씨(천하동인 3호 사내 이사)가 2019년 4월 19억원에 매입하는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났다.

관련된 회사들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주)화천대유 자산관리, 천하동인(주), 성남이플(주), 유원홀딩스 등 복잡하게 얽혀 있고, 차명(借名)으로 숨는 등 수수께끼 같은 돈 따먹기 복마전(伏魔殿)이다. 특별검사, 검찰총장, 대법관, 국회의원, 검사장 등 힘 있는 사람들 끼리끼리 해 먹는 비리 카르텔을 국민들은 언제까지 충격과 분노 속에서 지켜 보아야만 할 것인가. 국민들의 절망적인 박탈감을 누구 있어 풀어줄 것인가.

국민의힘은 경찰과 검찰은 정권의 애완견이어서 믿을 수 없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만 판치는 특검은 반대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여야, 신분, 지위 여부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대선 판세를 흔들고 있는 대장동 의혹은 정치권과 유력 대선 후보들까지 얽히고 설켜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외출타기 묘기를 보는 아슬아슬한 감마저 있다. 국민들은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와 정치권의 대응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 실망과 분노가 쌓이고 쌓여 어느 계기가 되면, 민중은 배를 뒤집어 버리는 성난 해일(海濤)이 될 것이다.

가을 산을 즐기는 가장 안전한 방법

기고

김창수 여수소방서 서장



피로가 축적되어 부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사고를 대비해 등산로에 설치된

시원한 바람 탓에 아침, 저녁 '가을이 왔다'는 것을 느낀다. 높은 파란하늘과 초록빛이었던 나뭇잎들이 형형색색 붉은 단풍 옷을 갈아입는 가을의 산은 일년 중 가장 아름다운 산을 볼 수 있다.

신선한 바람과 아름다운 산을 즐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으면서 그에 따른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여수에서는 작년 가을철에 가장 많은 산악사고(35.2%)가 발생하였다.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알고 등산을 해야한다. 산이 주는 아름다움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 몇 가지만 알아보자.

첫째, 산행 전 기상정보 파악은 필수이다. 일몰시간과 기온 등을 사전 확인하여 일몰 2-3시간 전 하산을 해야한다.

둘째, 등산 전 가벼운 준비운동을 통하여 근육을 이완시켜준다.

셋째, 나의 체력과 능력에 맞는 등산코스를 선정하고 나홀로 등산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산이 주는 모습이 다양하여 욕심을 내어 올라가지만

산악위치 표지판 등 이정표를 파악하고 등산 중 자신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한다.

다섯째, 사고가 발생하면 탈수·저체온증이 올 수 있다. 보온이 가능한 등산복을 준비하고 움직임을 최소화해 보온을 유지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사고로 출혈이 심할 경우 출혈부위를 수건 등으로 압박해 지혈하고 골절시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골절 부위를 고정해야한다.

사고는 갑자기 생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일어난 사고는 적절한 대처를 해야한다. 코로나로 실내운동에서 등산으로 취미를 바꾸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등산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 가을날씨를 마음껏 만끽하길 바란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법률구조상담 132
▲응급질병상담 1399	▲인광 야고보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키야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온라인 그루밍의 백신, 위장 수사

기고

서영진 강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작년 한 해를 떠올려보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나 '박사방'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 사건의 가해자들은 sns나 채팅 앱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하여 호감과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약점을 잡거나 성적 행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는 아주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성 착취 목적의 접근'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예방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간간·성 착취물 제작 이전이라고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온라인으로 대화나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온라인 그루

밍' 성범죄도 처벌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8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도록 명확히 하였다.

또한 재작년 11월, 당시 'n번방 사건'을 보면 수사하던 경찰관이 공유방에 잠입하려 하였으나 운영자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신분을 가려 입장시키며 추가 인증을 요구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경찰관이 디지털 성범죄사건 수사를 할 경우 ▲신분비공개 수사·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특례규정도 신설했다.

신분비공개수사란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숨기고 성 착취물 구매자인 것처럼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증거 등을 수집하는 수사를 의미하고, 신분 위장수사란 신분 비공개를 포함 문서·전자기록



등의 작성 및 행사로 가상 인물의 신분증 제작까지 가능한 수사를 말한다. 위장 수사가 가능해진다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위장수사는 합정수사의 성격도 일부 지니고 있어 적법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신분 비공개수사를 진행할 경우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신분 위장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와 범인의 허가가 필요한 만큼 통제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음지에서는 지금도 범죄에 노출된 미성년자들이 많을지도 모른다.

모든 백신이 바이러스를 100% 예방할 수는 없지만, 이번 아동법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보다 많은 효과를 가지길 기대해 본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견뎌낼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형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